

2020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추계학술세미나

주 제

“COVID-19이후 청소년활동 현장의 변화와 준비”

- 일 시 2020년 12월 22일(화) 15:00~18:00
- 장 소 강서청소년회관
- 주 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학회, 강서청소년회관 공동주최
- 진행방식 온라인 Zoom진행
 - Zoom | <https://us02web.zoom.us/j/86354324071?pwd=TXkwM3EwRVh3VzUwcFIINGUxZGFGUT09>
*회의 ID | 863 5432 4071
*암호 | youth
유튜브 | <https://youtu.be/K8GAXEgtyUc>

개 회 사

청소년활동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회색빛으로 물들었던 암울한 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네 일상의 삶이 움츠러들었고, 행동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청소년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향하였던 노력이 억제되어 자괴감과 우울감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고의 혁신 또한 필요한 시기입니다. 궁즉통(窮則通)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새로운 청소년활동의 미래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곳에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듯이 청소년활동의 현장 역시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건강한 활동의 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2020년 학술대회 역시 코로나19시대 이후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현재의 고민을 토로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활동수행이 분명 어렵기는 하지만 서로가 대안을 찾고자 한다면 충분히 개선책을 찾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연말 여러 가지 정리로 바쁘시겠지만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시간을 내시어 학술대회의 논의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활동학회는 회원여러분의 각고의 노력과 지원으로 창립 8년만에 2020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가 되는 쾌거를 맞이하였습니다.

작은 진보이지만 우직하게 한걸음 한걸음 내딛으면서 청소년활동의 발전만을 생각하는 청소년활동학회를 이루고자 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2020년 한해를 뒤로하면서 회원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많은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한국청소년활동학회장 권 일 남 배상

Contents

》》 기조발제	1
• 코로나19 이후 청소년활동 현장의 변화와 준비	3
발제자 권일남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회장)	
》》 토론	17
•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영향과 대응	19
토론자 윤나랑 (명지대학교)	
• 비대면 청소년활동 현장의 문제고찰	26
토론자 김경미 (미추홀구청청소년수련관 관장)	
• 청소년정책의 변화 방향 고찰	40
토론자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코로나 이후 공교육의 변화 예측과 대비	43
토론자 김정율 (강서청소년회관 관장)	

2020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추계학술세미나

“COVID-19이후 청소년활동 현장의 변화와 준비”

시 간	내 용	담 당
15:00~15:20	개회사 학회장 권일남	사회 김태균 성산호대학원대학교
15:20~16:00	기조발제 COVID-19 이후 청소년활동 현장의 변화와 준비	권일남 한국청소년활동학회장
16:10~17:30	토론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영향과 대응	윤나랑 명지대학교
	토론 비대면 청소년활동현장의 문제 고찰	김경미 미추홀청소년수련관 관장
	토론 청소년정책의 변화 방향 고찰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 코로나 이후 공교육의 변화 예측과 대비	김정율 강서청소년회관 관장
17:30~18:00	전체 토론	

COVID-19 이후 청소년활동 현장의 변화와 준비

권일남 한국청소년활동학회장

코로나19 이후 청소년활동 현장의 변화와 준비

권일남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회장)

1. 들어가며

코로나19 발생 초반 심각성은 우리의 일상적 인식을 앞섰고 펜데믹이라는 낯선 용어는 생소하면서도 우리 앞에 어찌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허둥지둥 시간이 지나며 이제는 그 실체가 주는 무게는 너무도 크고 깊게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에 새로운 환경적 적응과 시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인간 직접 접촉과 신체적 체험활동을 주로 해 왔던 청소년활동은 더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였고 2020년 상반기 청소년시설은 개점휴업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였다. 대부분의 공공청소년시설은 국가 및 자치단체의 행정적 조치에 따라 문을 닫고 추이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과 같은 민간시설의 경우 단순히 임시휴원의 문제가 아닌 영업수익 악화에 따른 경영압박과 함께 도산을 걱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무방비로 내몰리기 까지 하였다.

해병대 캠프에서의 사고 등 청소년활동을 위축케 하는 일들이 이전에도 있어왔으나 그래도 이전에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과의 싸움이라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위협이라는 점에서 무기력과 좌절, 탄식의 연속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또한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현 상황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진 채 여타 기관의 모습을 바라보는 눈치 게임의 연속이다.

한편 넓게 보면 청소년활동영역에서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발로였지만 알아채지 못한 것일 뿐이란 점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그간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활동영역이 걸어온 길을 회상해 보면 정착기와 성장기 그리고 침체기라는 부침의 연속이었으며 청소년활동을 구조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을 통한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각각의 거치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에는 너무도 안일한 대응을 해 왔음을 반성케 한다. 청소년육성현장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그 성과에 대한 인식이 수혜자와 제공자 사이의 공감성이 깊어야 하고 그 가치를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커다란 격차가 발생한 점을 지각하지 못한 것 같다. 결국 코로나 시국이라는 현 상황에서 정부도 사회도 학교교육과 같이 가장 먼저 걱정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이 아닌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어버린 청소년정책이 되고 말았다. 막연히 비대면 활동을 통해 운영하라는 지침이나 경영적 압박이라는 직면한 위협에 대한

대안도 없이 무작정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청소년시설의 입장은 외롭기 짝이 없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은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상태를 넘어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하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이나 방법론의 획기성을 찾아보아야 하며 동시에 현재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이어나갈 고리를 만들어 가는 노력도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고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활동영역이 겪고 있는 실체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하고 어떠한 대안이 있을 수 있는 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펜데믹 상황이 수혜대상자인 청소년에게 그리고 사회적인 성장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책의 부재와 내부적 반성

사실 청소년활동과 같이 외형적 사건과 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조건하에서는 오히려 거대담론을 수용하고 진행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정책기관은 말그대로 언택트(untact)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최대한 보수적인 대책으로 일관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언택트(untact)가 아니라 접촉금지(touchless)나 비접촉(nincontact)이 맞다는 표현도 있지만 용어의 옳고 그름의 논의를 떠나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점에서 그 본질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상황을 접한 청소년분야의 정책적 지향점은 아마도 <표>와 같은 식의 대책이 전체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언택트정책에 매달린 청소년활동시설

날짜	주요 내용	요청기관
2020. 2. 8 ~ 2. 29 [22일간]	○ 시설 임시 휴관	서울시/구청
2020. 2. 24 ~ 3. 9	○ 전국 유치원·초·중고 개학인 연기조치와 연동 ○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서울시
2020. 3. 9 ~ 3. 22 연장	○ 휴관기간 연장	서울시
2020. 3. 23 ~ 4. 5 연장	○ 휴관기간 연장 ○ 돌봄기능, 시설물 관리	서울시
2020. 4. 6 ~ 별도안내시까지	○ 시민 응대 시설 관리 소독 및 방역 철저, 긴급돌봄 유지, 종사자 복무관리 등	서울시
2020. 5. 13	○ 시설운영재개	서울시
2020. 5. 20	○ 단계적 운영재개 일정변경	서울시

날짜	주요 내용	요청기관
2020. 5. 29 ~ 6. 14	○ 종전 휴관 조치와 동일하게 시행	서울시
2020. 6. 15 ~ 별도안내시까지	○ 종전 휴관 조치와 동일하게 시행	서울시
2020. 7. 6	○ 제한적 운영재개	서울시
2020. 7. 20	○ 제한적 운영재개	서울시
2020. 8. 3	○ 제한적 운영재개	서울시
2020. 8. 16 ~ 8. 29	○ 휴관조치	서울시
2020. 8. 16 ~ 8. 31	○ 휴관조치	서울시
2020. 8. 31 ~ 9. 6	○ 휴관조치	서울시
2020. 9. 7 ~ 9. 20	○ 휴관조치	서울시
2020. 9. 21 ~ 9. 27	○ 휴관조치	서울시
2020. 9. 28 ~ 10. 11	○ 휴관조치	서울시
2020. 10. 14	○ 단계적 운영재개	서울시
2020. 11. 19	○ 1.5단계강화에 따른 정원 50%이내 참여 제한	서울시
2020. 11. 21	○ 2단계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른 정원 30% 내 제한 운영	서울시

자료 : 서울시, 구청의 2020년 청소년시설운영 공문 종합

물론 코로나19 초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였으나 중국, 이탈리아, 유럽, 미국 발 코로나19의 위협을 통해 우리가 체감한 불안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도 특정지역에서 촉발된 발병과 유병률은 불안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인지 초기의 청소년활동의 비접촉을 전제로 한 규제는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지각하였으나 이러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안을 찾기 위한 목소리 역시 비등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표 1>에서와 같이 대책은 무대책이었고 접촉이 금지된 청소년활동은 그 본질을 훼손한 채 청소년에게는 방구석놀음이, 청소년시설은 개점휴업이 당연시된 흐름을 이어오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코로나 19가 청소년활동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청소년활동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되어 왔다. 즉 청소년활동을 통한 경험과 활동의 효과성이 청소년활동을 이행하는 대상자에게 선순환구조를 이루기 보다는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나 교사에게는 그저 한 순간에 즐기는 수단에 불과한 그러면서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에는 사실상 실패에 가까운 한계를 가져 왔다.

청소년활동의 성장과 둔화를 바라보는 핵심은 아마도 청소년정책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

다. 지난 청소년활동의 성장과 역동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청소년활동이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맥락을 이해하여 제공하기 보다는 외형과 형식적 논리의 구축이라는 모습에만 더욱 관심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청소년활동의 이미지 제고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금도 청소년활동을 바라보는 맥락적 관점에서 그 존재와 실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청소년분야의 관계자들이 이러한 진데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 실제 청소년활동의 경험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 무엇이라는 손에 잡히는 가치를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 초기의 청소년활동이 활동공간과 터전을 중심으로 바라보았던 상징적 가치가 여전히 청소년활동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주축이 되고 있으며 그 의미 이상의 성과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자인 할 수밖에 없다.

3. 혁신의 가치와 거리가 있는 청소년활동

현 상황의 안타까움은 그나마 연명의 상태에 있던 청소년활동의 유지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는 외부적 상황에 다른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수용적이지 못한 채 노정된 몇 가지 반성적 지점들이 있다.

이에 그동안 청소년활동의 발목을 잡았던 우리 내부적 반성이 필요한 지점과 그 속에서도 변화의 흐름에 동승하려는 노력의 부분을 몇 가지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불안한 환경과 새로움의 기대라는 외침에 기울이지 못한 아쉬움

청소년활동의 자리매김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문성으로 체계성을 구체화하지 못한 부분에 있다. 사실 청소년활동은 보는 관점과 수행의 측면에서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청소년활동의 목적과 가치의 명료성을 설명하는 학문적 기초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말하는 경험학습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그 내면의 조화를 통한 변화는 곧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핵심의미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핵심가치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청소년활동은 다양성을 근거로 한 체험활동의 요소를 그대로 접목한 속성이 강하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행동지향적 속성을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였던 점에서 소비자중심의 수용에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우리 스스로도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청소년활동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소년활동의 존재만으로도 위상

을 얻을 수 있었지만 부모와의 여행이 쉽게 이루어지고 동료간 다양한 접촉이 강화되면서 단순 체험중심의 청소년활동은 점차 자리를 잃어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유사한 청소년활동이 학교혁신, 마을혁신,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더 쉽고 흥미로운 체험기회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청소년활동은 공간중심, 시설중심이라는 막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는 중국에 청소년활동의 무용론이라는 소비지의 외면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2) 위기를 통념으로 해결하려 했던 보수성

우리의 청소년활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그동안 꾸준히 학계와 현장을 중심으로도 요청이 있어 왔다. 현재의 극기훈련, 단순체험, 피상적 체험이라는 행위주의적 활동이어서는 안되며 같은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필요한 내재화된 성장과 변화를 스스로 이끌어 내기 위한 비구조성을 구조화된 틀에서 혁신을 이루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침은 찻잔속의 미풍에 불과하였고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깊이있는 관심과 연구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변화는 필요하되 그 변화를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해줄 것이라는 단순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 청소년활동은 그동안 행했던 방식, 유사한 프로그램의 재탕, 집단구조에 매몰된 정책과 요구를 마치 청소년활동의 혁신으로 요청하였던 셈이다.

이러한 보수성은 앞서 광풍처럼 불어 왔던 4차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소용돌이의 대처에서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 사회가 변화해야 하며 그 변화를 이룰 핵심인재가 바로 청소년이어야 함에도 청소년활동은 4차산업의 주도성이 아닌 피상적 활동의 수용 즉 3D, 드론, 레이저커팅 등 몇가지 신산업구조의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혁신성을 대치하려는 점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알지 못하는 기술의 수용은 최소화하며 맛보기 식의 활동체험에 매몰되어 실제 기술과 산업 혁신의 토대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주고자 하려는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맛보기 기술의 전개가 혁신으로 자리잡았고 그 이면에서 청소년활동은 더욱 더 거리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3) 새로운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고착성

인간은 변화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사회통념에서 형성된 가치기준이 바로 그러한데 오히려 강하게 형성된 가치의식은 새로움을 받아들이고자 해도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는 문제를 보여준다. 새로움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형식의 보편성이 몸과 머리에 배여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관행으로 굳어진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된다.

지금의 청소년활동을 담당하는 지도자의 전문성에 대한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구에게나 청소년활동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활동을 새롭게 구성하여 혁신적인 방식과 기술을 배워서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자꾸 새로움을 밀어내는 거부감이 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면 집단저항성이 나오게 되고 궁극에는 혁신과 비혁신 사이에서 혁신을 교묘하게 비판하고 꼬아서 새로움이 아닌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의 대항성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의 사고는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고 새로움으로 무장하려는 속성이 강하며 여기 저기를 두리번거리는 세대이기에 청소년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 줄 것인가의 고민은 청소년지도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논제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스스로가 변화하지 못하는 점은 없는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려는 마음자세의 행태와 행위 더 나아가서는 자발적이지 못한 점을 타의에 의하여 변화를 시키도록 하는 교육과 다소의 강제성 등이 필요한데 어느 곳을 보아도 이러한 혁신성을 주도하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4) 청소년들의 변화거리감을 좁히지 못하였던 좁은 시야

청소년활동의 어려움을 말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곧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의 가치가 약화되고 있음이 아닐까 한다. 누구로부터의 압력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활동의 존재감을 지각하고 활성화하도록 요청이 강하게 대두되어야 생명력이 길어진다.

곧 청소년활동에 대한 변화는 청소년들의 사고와 요청이라는 점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며 시대에 따라 어떠한 기술과 재능이 확장되며 동시에 이들이 원하는 바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수행하는 요구분석 즉 청소년들이 원하는 활동이라는 점은 현상과 행위중심으로 보여지는 내용에 국한된 활동의 모습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청소년의 요구와 청소년지도자의 요구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요구가 서로 매칭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청소년활동은 사업중심, 성과중심, 보여주기식의 행위에 국한된 한계를 여실히 나타내었기에 청소년활동의 작금의 어려움은 당연한 귀결이라 여겨진다.

5) 청소년정책의 청소년활동희망과 비전의 부재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보호, 복지 등 청소년정책의 3대 영역 중 하나인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청소년활동은 상징성을 잃어 버리고 무관심과 마치 버리는 카드로서 정책의 중심부에서 변두리로 이전되어 갔다.

대상중심의 청소년정책은 쉽고 편리한 예산획득의 방식에 매몰되어 요보호, 학교밖, 상담, 문제중심 대처와 같은 7~80년대 청소년대책중심의 정책으로 회귀되어 갔다.

자연 다수이거나 전체의 청소년중심 정책은 소멸되어지고 소수 그것도 복지국가라는 전체의 맥락에서 사람들의 손쉬운 동의에 급급한 정책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서 청소년활동은 정책이 되지 못하였고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려는 차원으로 이어져 온 것이 아쉽다. 더욱더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없어진 채 정부주도의 청소년활동과 정책은 마치 사업이라는 말로 청소년활동을 대변하게 된 점은 말 그대로 청소년활동은 정책의 주변부로 전락해 버리도록 내버려둔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6차청소년정책의 흐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아무런 의미없는 청소년시설의 명칭변경, 또 작금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청소년지도사의 명칭변경 등은 청소년활동의 전문성, 체계성과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는 소모적인 논의에 불과한 예이기도 하다.

이처럼 그동안 우리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현장의 변화목소리는 커 왔지만 어느 누구도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할 것인지를 거대 담론은 부재한 채 마치 땀질식 정책, 보여주기식 정책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현장모습도 크게 다를바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은 지금과 달라야 한다는 새로움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다.

4. 코로나19가 주는 혁신의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 고통의 단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고통의 순간에도 변화의 짙은 새로움으로 잉태되어 자발적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사실상 눈물겹다.

앞서의 논의와 같이 그동안 청소년활동의 변화를 수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는 소수의 관계자만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어려움만큼 새로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냈다.

코로나19 초기만해도 행정지침에 의한 언택트가 지침이었고 그 방향을 준수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나름 대처를 해야 한다는 변화의 목소리는 혁신이라는 가치를 관념과 생각속에 머물게 하지 않고 새로움으로 무장한 실천적 행태를 자극하였고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얻어진 청소년활동의 새로운 성과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청소년지도자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힘으로 작용

가장 큰 변화로는 지금까지의 청소년지도사가 새롭고 혁신성을 생각속에 탑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스스로 깨닫게 해 준 점을 들 수 있다. 청소년시설의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청소년지도자 스스로도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점, 청소년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로 인한 존재의 불안정성 등은 새로운 방법의 탐색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전에도 혁신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필요한 몇몇의 사람들만 느끼는 것이었지 대다수의 청소년지도자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만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방법이 불가한 이상 새로운 형태의 방법론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당위성을 크게 제시하였고 그 결과 청소년지도자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음이 큰 성과이기도 하다.

2) 청소년과 눈높이를 맞추는 실제적 방법 탐색

청소년들의 빠른 정보화능력이거나 변화는 세대를 아우르며 정보를 권력화하는 시대로 성장하고 있다. 마치 스마트폰을 입에 물고 태어난 세대로 일컬어지는 이들을 구시대적 교육에 맞추어진 청소년지도자들에게는 거리감이 있어도 그동안은 자신의 지식과 권위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의미있는 타자로서의 역할을 해 왔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정보이용수준과 방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데에도 청소년지도자는 이와는 거리가 있는 행위를 거리낌없이 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거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만남의 기회가 없어지되 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등 수많은 소통의 방식이 청소년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술적 한계를 보였던 청소년지도자들도 청소년과 함께하는 기술혁신에 동참하게 되어 진정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기술적 통합을 이루게 된 점은 아이러니하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보기술의 수용은 청소년들의 요구와 바람을 쉽게 찾아가는데 기여하고 있음이다.

3) 새로운 교육방법을 찾고 적용하는 교육공학적 발견

온라인의 형식은 오프라인에 비해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기 쉽다. 하지만 오히려 더욱 어려운 준비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프라인에 비해 두세배 어려운 준비와 전달방식, 참여자의 관심을 유도해야 하는 질문과 참여형태, 잠시만 무관심해져도 다른 곳으로 눈과 손이 가는 집중력 저하 등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지도자의 새로운 필요역량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이 구성하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활동의 과정에서 서로가 하나되고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배우고 전달하려는 노력이 새롭게 대두되게 된 점이다. 이는 청

소년지도자가 이전에 느끼지 못하였던 새로운 교육공학적 접근방법의 습득이어야 함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청소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내·외적 보상의 제공, 참여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기술적 전달내용, 프로그램운영시 집중력 저하를 방지하는 시간고려 등 수많은 새로운 방법을 스스로 깨닫게 된 점은 청소년지도자의 지도역량을 몇단계 끌어올린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

4) 청소년지도자중심에서 청소년중심의 혁신적 활동 전개

온라인, 비대면활동이라는 점은 청소년이 기술적으로 뛰어난 경우가 많다 보니 청소년이 자신의 기술을 중심으로 주도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참여중심, 청소년중심 활동의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갖춘 기술과 능력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은 이전보다 더욱 더 청소년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유튜브활동이나 각종 비대면활동을 위한 기획과 아이디어 제공, 참여과정에서 주도적 발표 등은 이전보다 더욱 더 청소년중심 활동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청소년중심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5)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전달방법을 스스로 찾게 됨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에게 참여의 권한을 넘겨 준 대신 청소년지도자는 활동전반에서 거시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장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의미를 재확인하게 된다. 즉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참여과정에서 청소년에게 기획력을 뽐내게 하고 그 재능을 바탕으로 생각나누기, 표현하기, 아이디어발굴하기, 협력하기, 지지하기 등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필수적인 의미를 찾아서 청소년들이 깨우치도록 돕는 기능을 해 줄 수 있기에 오히려 아나로그식 활동보다 더 청소년지도자의 예리한 관점과 지원의 능력이 필요하게 된 점이다.

6) 청소년활동이 사·공간 중심에서 사·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영역 발견

청소년활동이 비대면화되면서 기획과 운영의 대상자는 오히려 소수가 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참여자의 참여형태는 지리적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이전에는 우리 지역, 동네,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만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지역, 국가전체,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청소년에게도 새로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진 점이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움을 청소년활동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반향력

이 무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기제를 갖추었고 그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긍정성도 엿보인다.

물론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성과는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부재, 문제 등에 대한 안타까움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현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얻기 위한 노력 역시 가미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살리려는 노력을 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은 청소년활동의 변화를 주도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향후 청소년활동! 어떻게 가야하며 그 길은 있다고 보는가?

청소년활동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기에겐 여러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가미되어질 때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여전히 현장의 청소년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활동을 수행한 현 상황을 평가의 잣대로 보면서 나름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식의 생각을 투영시키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경험을 해봤으며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대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며 동시에 청소년활동의 새로움을 강조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숙을 유도하는 방법을 찾는 데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고민해 보는 노력이 시급히 필요해 보인다¹⁾.

1) 비대면활동의 기술적 제약을 극복하게 하는 장비지원과 여건마련

○ 장비의 부족문제해소와 접근성 강화

-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장비가 부족한 경우가 다반사 발생함. 노트북, 웹캠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있어야 하나 기관 내 기자재가 제한적이며 참석자의 경우에도 기관 내 여분의 기자재가 없을 경우 참가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함

1) 이하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다양한 비대면 활동들을 수행하였던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사업의 수행과 청소년시설의 운영현황, 애로점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해 보는 내용과 방향성을 언급했음. 따라서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이기보 다는 향후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이나 또 다른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비대면 활동이 요구될 때 준비되어야 할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 자산취득이 어려운 기관에서 물품 사용이 용이하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함. 대여의 경우 자산취득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됨.

2) 기술적 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적 역량강화교육 실시

- 청소년지도사 대상 비대면 교육은 업무와 교육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낮음. 또한 쌍방향의 소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자 또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비대면 교육 및 회의는 실무자의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지식, 기자재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무자의 경우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
- 음성과 영상이 맞지 않아 (썸크가 맞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의중을 이해하기 위한 집중력 낭비로 쉽게 피로해짐.
 - 회의 진행시 30분 단위로 진행 10분 쉬는 시간 등 단기간 효율적인 회의 운영방식 표준화 필요
- 아직은 화상회의 및 비대면 프로그램 운용이 미숙한 참여자가 다수라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온라인화상회의 관련 매뉴얼 보급 및 설명회 운영
- 전문적인 지식 습득
 - 온라인 교육을 진행함에 줌과 유튜브를 사용하려면 사용법 및 진행방법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및 다양한 강사 필요
 - 의미 및 내용 전달을 위한 강사진 및 담당자의 회의 방식 및 스킬 필요
- 화상회의 진행 시 참가인원의 피드백(특히 음성)이 적고 카메라 및 모니터만 보게 되는 낮은 느낌이 들어 상호 공감 또는 교감 등 의사소통의 어려움 발생.
 - 주석달기, 클래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 운영 진행

3) 비대면시대에 새롭고 혁신적 활동을 추구하는 활동프로그램개발교육 추진

- 비대면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기획과 참여식의 활동은 적용하기 어려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탐색, 혁신 등의 새로운 교육방법 필요
- 청소년들의 비대면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혁신 프로그램개발 방법 습득과 지원

4)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간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도방법 개발과 지도

- 대면 회의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대화 참여율이 저조함.
 - 대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생각 됨.
- 비대면 회의는 대면 회의보다 의견 개진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 대상자들에 의견을 충분히 듣는데 한계가 있음

코로나19시대의 행동의 제한성을 오히려 새로움으로 무장해야 하는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기에 청소년활동의 제2의 전환기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의 활동을 재탐구하고 체계성을 높여 대안적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행동체험과 능력을 확산시키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는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해야 할 가능성을 찾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며 잘 가기 보다는 가려는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에도 꾸준히 제공해야 할 청소년활동의 희망이라는 물고를 찾는 노력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맺으며

언택트와 청소년활동의 상관성은 매우 심각한 속성을 보인다. 아마도 청소년활동이라는 본질을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데 실패한 여러 이유로 인해 아마도 청소년의 경험적 활동에 주안점을 둔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정책내에서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기제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다.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한 채 따라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영화만을 되뇌이며 수련원에서는 극기훈련이라는 집단성, 코흘리개 밥장사라는 오명, 과거와 변함없는 활동의 속성, 만들어진 구성품에 청소년들이 체험하는 식의 불편감 등은 청소년활동의 변화를 끝없이 부르짖었지만 받아들이는자의 변화의지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같다. 더 나아가 학교와의 연계를 강조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 구체적 내용의 부재와 함께 해당 내용을 실제화하려는 강력한 힘의 발현 등도 없이 막연한 기대감을 대안이라고 한 점은 결과적으로 지속성, 연속성, 창의성, 변화추진성 등의 의지를 심화시키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 같다. 여기에 더해 겹쳐진 팬데믹 상황은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이라는 명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있는지를 뼈저리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과거에 안주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청소년활동 현장의 위기사황을 단순히 외부적 위협에 의한 문제이며 위협이 해소되기를 기다리며 비대면 활동의 수행 등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

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청소년지도, 청소년활동의 방안을 고민하며 동시에 코로나19 상황 이후 변화된 청소년의 성장환경과 사회적 현상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영향과 대응

윤나랑 (명지대학교)

비대면 청소년활동현장의 문제 고찰

김경미 (미추홀청소년수련관 관장)

청소년정책의 변화 방향 고찰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코로나 이후 공교육의 변화 예측과 대비

김정율 (강서청소년회관 관장)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영향과 대응

윤나람 (명지대학교)

청소년의 삶은 사회적 변화에 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변화에 청소년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19와 같이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한 위기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활동현장에서 바라보는 이슈들을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주신 학회와 문제제기와 함께 청소년활동에 대한 깊은 고민의 물고를 터주신 발제자께 감사드립니다.

본고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 개인에 대한 논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청소년활동현장의 첫걸음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활동분야에서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토론주제로 청소년들과 함께 시작한 연구에서 도출된 두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연구과정 ppt참조).

첫째, 주변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민감성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잊지 못할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민감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던 걸 기억한다. 지금 다시 한번 청소년들의 삶이 안전한가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19라는 질병과 관련된 환경쟁점은 전 세계의 공통된 주요 관심사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오는 다양한 도덕적 문제의 딜레마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혼란 속에 실질적 도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에 청소년활동분야에서는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율적이고 장기적인 행동을 이끄는 책임 있는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잘못된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공동체교육이 필요하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의 특성을 보면 ‘나’를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국가에서보다 ‘우리’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국가에서 코로나 19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분야에서는 청소년집단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시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공동체교육은 꼭 필요하다. 이때 반드시 청소년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제자께서 강조하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핵심의미인“철학과 가치 그리고 그 내면의 조화를 통한 변화”의 중심에 청소년지도자들이 있음에 책임감을 느끼며,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청소년지도자’우리도 누군가에겐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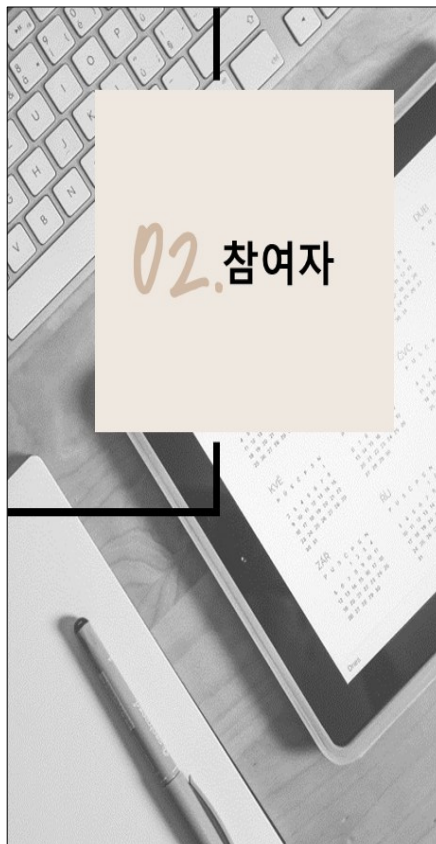
0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포토보이스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이 경험한 코로나19의 의미를 살펴보고, 대처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왜 나는 포토보이스 방법을 사용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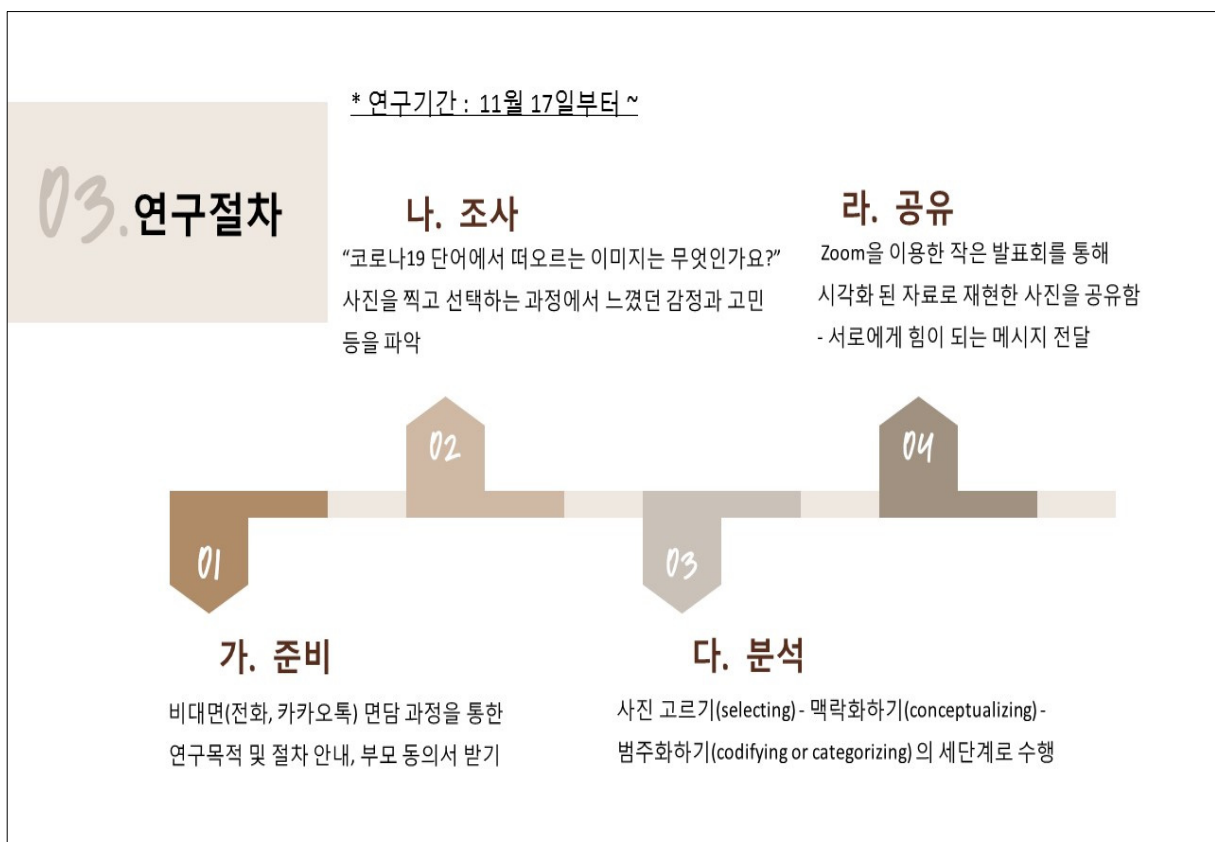
: 청소년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의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 스스로가 이슈전문가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는 자발적인 청소년 참여자 8명을 선정하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 분	성 명	나이	학년	성 별
참여자1	김*희	14	중1	여
참여자2	김*현	14	중1	남
참여자3	김*인	15	중2	남
참여자4	이*영	12	초5	여
참여자5	김*하	12	초5	남
참여자6	김*경	17	고1	남
참여자7	김*서	13	초6	여
참여자8	전*영	15	중2	남





04.

연구결과


상위주제	하위주제	감정/느낌
1. 시간의 의미	잠시 멈춤	불편함
	미개봉	우울함
	시작과 끝	무기력
2. 공간의 의미	같은 교실 다른 교실	갑갑함
	아이러니	공허함
	공간에 대한 예의	찜찜함
3. 관계의 의미	어몽어스에서 만나	아쉬움
	단절	쓸쓸함
	혼란스러움	답답함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습	고마움
	미운정 고운정	무덤덤
	동생이 생겼어요!	따뜻함

1. 시간에 대한 의미




"미개봉"

2020년 물놀이를 한 번도 못했어
요. 저에게 여름은 꼭 해야하는
것중 제일 중요한 일인데요... 아직
택도 못뎌 수영복이 아두워서 꺼
내서 찍어보았습니다.



"잠시 멈춤"

학원이나 서브웨이 등 어디를 가더라도 발열체크를 귀찮지만 꼭 해야
해요... 그냥 뭐 하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지만 시간이 지연 되요. 매일
하던 일상에서 몇면 분씩 시간이 늦
게 가는 기분이 들어요.



"시작과 끝"

학교에 안간지
10개월째...
와플을
사먹으러 갔다가
등교 학교시간이
적혀있어서 갑자기
반가웠다.
시작이 있었으니
끝도 있었으면
좋겠다!

2. 공간에 대한 의미

"같은 교실 다른 교실"

학교는 가는데...교실속 풍경은 달라졌어요.
친구들과 수다도 못떨고 나가서 피구도 못하고...
교실은 변하게 없는데 우리가 못하는게 많아졌어요.
그래도 나만 떠들수는 없어서 ...참았어요

"공간에 대한 예의"

엘레베이터안에서 할아버지가 가리지도
않으시고 기침을 심하게 하셔서...
순간 숨을 참았어요...
공간에 대한 예의가 필요해요.

3. 관계에 대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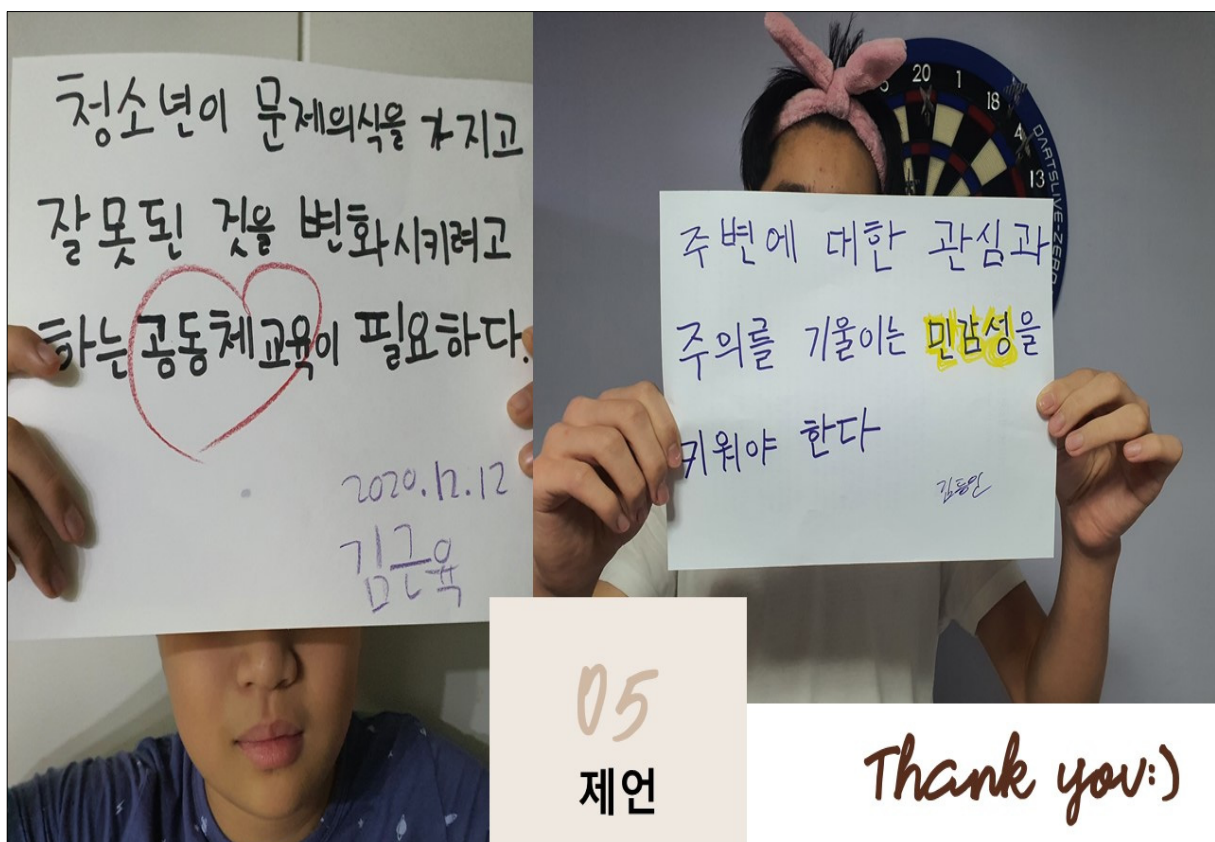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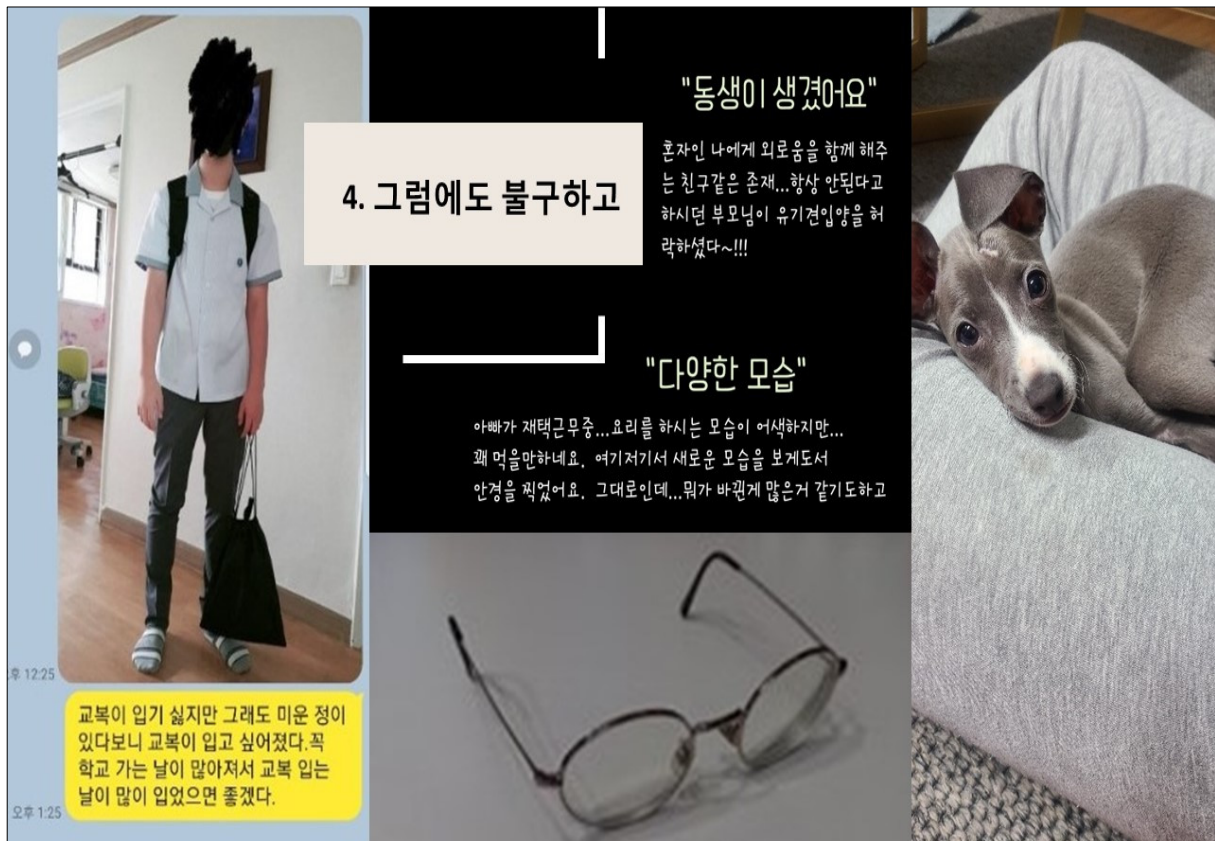
"어몽어스에서 만나"

요새 유일한 재미...통화하면서 어몽어스게임하기!
하지만 직접 만나 옆에서 수다떨면서 하면 더 재밌는데
가끔 만나서 할까? 서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엄마 눈치를 보죠

"혼란스러움"

오늘 열이 난다고 결석한 친구네 놀러갔어요.
괴병인걸 알고 있어서...아무생각 없이 갔는데...
놀고 나오는길에 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달려있어야 하는 문을 연거 같은 느낌?

"단절" 학교도 학원도 가는데....토요일 오는 수련관은 달랐다.



비대면 청소년활동 현장의 문제고찰

COVID-19 이후에 현장의 변화와 대응

김경미 (미추홀구청청소년수련관 관장)

1. 들어가며

사회가 점점 스마트해지면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일상이 가능한 시대를 향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비대면 시스템을 접해야 하는 현실은 미숙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혼란했던 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기존의 생활방식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우리 몸에 스민 생각과 행동 패턴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우리들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불어 현장에서의 청소년지도자들은 반복되는 휴관과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열악한 상황에서 분주하게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활동과 소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동영상이든 라이브 방송이든 온라인 특성상 참여 청소년은 오프라인 대비 긴장도가 낮고 집중력 유지시간이 짧다. 때문에 자기주도적 성향과 자기관리 및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 집중과 긴장도가 떨어져 참여도가 더 낮아짐에 따라 태도와 효과가 고스란히 활동 목표 달성 및 참여자의 효과성의 격차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 진행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형태로 대체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존에 생각하던 청소년활동의 효과 및 고유목적 등의 한계적 제한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강제로 맞이하게 된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편리하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예측된다면 혁신과 변화가 필수이며 이는 청소년시설 행정의 유연성, 인력의 역량강화 등 선행되어야 많은 과제를 상정하게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자칫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정부와 개인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본 토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성적으로 접근하고 여러 대안을 검토한 발제자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비대면활동의 사례를 토론자가 근무하는 미추홀 청소년수련관의 사업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를 통해 노출된 현장의 애로와 개선 요구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언하여 발제자의 제언에 보태고자 한다.

2. 미추홀구청청소년수련관 온라인 활동의 사례

(대면 → 비대면 및 온라인 프로젝트 운영)

가. 유형별 비대면 활동의 사례

1) 경과 및 개요

- COVID-19가 지속되면서 당초 대면으로 진행되던 목적사업을 비대면 및 온라인 활동으로 수시로 변경하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
- 다양한 비대면 및 온라인 활동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영상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과 활동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민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냄
- 반면 비대면 및 온라인 활동의 가시적 효과는 대면활동에 비해 드러나지 않아 대내외적으로 청소년지도 활동을 평가 절하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음
- 미추홀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된 다양한 비대면 분야 (가족소통, 온라인기획, 비대면활동, 방과후아카데미 활동 등)와 향후 변화에 필요한 고민을 공유하고자 함

2) 유형별 온라인 활동


유형	활동명	주요내용	비고
가족활동	미추와 콩나물	-일정: 3. 27.(금)~6. 25.(목) -장소: 온라인 및 각 가정 -대상: 대학생 서포터즈 15명 및 관내 9세~24세 청소년 -내용: 대학생서포터즈 기획활동, 콩나물 키우기, 관찰일지 작성, 콩나물 콘테스트	대면 → 비대면 전환
	행복한 패밀리 박스	-일시: 4. 29.(수)~11. 7.(토) -장소: 온라인 및 각 가정 -대상: 9세~24세 청소년을 포함한 36가족 -내용: 행복한 패밀리박스(꽃다발 만들기+비누클레이 키트), 우리가족그린라이트(홈가드닝텃밭 가꾸기+송편만들기 키트)	비대면 추가개발
	호국보훈의달 기념 애국가	-일시: 4. 29.(수)~11. 7.(토) -장소: 온라인 및 각 가정 -대상: 9세~24세 청소년을 포함한 36가족 -내용: 애국가(스마트폰 QR코드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역사, 태극기 스프링아트 기념 편지쓰기 등)	비대면 추가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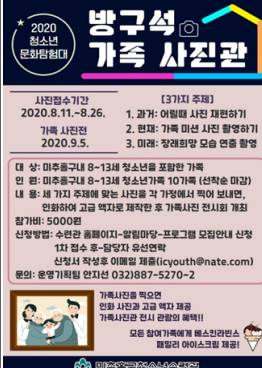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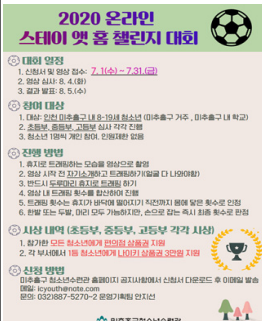
유형	활동명	주요내용	비고
	가족 DIY 목공예	-일정: 6. 20.(토)~11. 25.(수) -대상: 9~24세 청소년을 포함한 35가족 -내용: 가족과 함께하는 홈 목공예 제작 활동 진행	대면 → 비대면 전환
	가족캠핑 생방송 톡! 톡! 홈캠핑	-일정: 11. 21.(토) -장소: 온라인(ZOOM) -대상: 9세~24세 청소년포함 5가족 -내용: 캠핑용품제작, 소통교육, 가족 티셔츠 만들기 등	대면 → 비대면 전환
	방구석 가족 사진관	-일정: 8. 11.(수) ~ 9. 26.(토) -대상: 관내 8~13세 청소년포함 가족 7팀 -내용: 세가지 주제(과거, 현재, 미래)에 맞는 가족 사진 촬영 및 가족 사진 전시회 관람	비대면 추가개발
청소년 참여 및 활동영역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욕구 조사	-기간: 1. 18.(토)~11. 28.(토) -장소: 수련관 및 온라인(영상채팅&카카오톡 그룹채팅) -대상: 청소년운영위원 20명 및 관내 청소년 9~24세 -내용: 정기회의, 온라인 기획활동(DIY수세미 제작 및 기부활동, 온라인 청소년 욕구조사, 집콕 취미생활)	대면, 비대면 혼합
	대학생 서포터즈 응원해요 프로젝트	-일정: 9. 26.(토)~10. 24.(토) -장소: 수련관 및 온라인(페이스북) -대상: 대학생서포터즈 및 지역 청소년 44명 -내용: 청소년활동 동영상 제작 및 청소년 참여이벤트	대면, 비대면 혼합
	2020 풋살대회 스테이 앳 홈 챌린지	-일정: 7. 1.(수) ~ 8. 5.(수) -대상: 관내 8~19세 청소년 17명 -내용: 두루마리 휴지 트래핑 챌린지 대회진행, 기존 대면활동 모집시에는 선착순마감으로 활성화된 프로그램이었지만, 온라인 비대면 형식의 참가자 모집은 매우 어려웠었음	대면 → 비대면 전환
청소년 참여 및 활동영역	온라인 댄스 대회	-일정: 5. 18.(월) ~ 5. 30. (토) -대상: 인천 내 14~24세 청소년 52명 -내용: 하모니자치활동단의 기획활동으로 온라인댄스 경연대회 예선, 본선, 시상 진행	비대면 추가개발
	청소년운영위원회 SNS 이벤트	-일정: 7. 21.(화)~7. 31.(금) -대상: 인천 9~24세 청소년 198명 -내용: 청소년운영위원회 기획활동 비대면 온라인 지역 청소년 욕구조사	대면 → 비대면 전환
	줄넘기 활동 '점핑'	-일정: 10. 16.(금) ~ 10. 31.(토) -대상: 관내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15팀 -내용: 하모니자치활동단의 비대면 기획활동으로 노라인 줄넘기를 활용한 가족 온라인 신체활동	비대면 추가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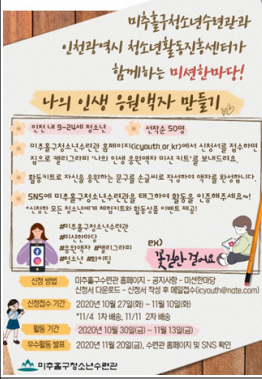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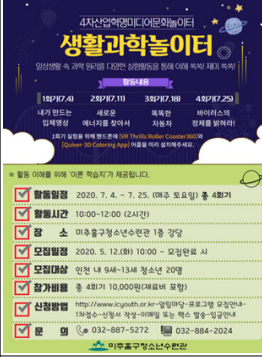

유형	활동명	주요내용	비고
	나의 인생 응원액자 만들기	-일정: 10. 27.(화) ~ 11. 13. (금) -대상: 인천 내 9~24세 청소년 51명 -내용: 캘리그래피 나의 인생 응원액자 만들기	비대면 추가개발
	4차산업활동 생활과학 놀이터	-일정: 7. 4.(토)~7. 25.(토) -대상: 인천 9~13세 청소년 18명 -내용: 4차산업관련 생활속 과학원리를 통한 이론 및 실험활동 제공	대면 → 비대면 전환
	집콕취미생활	-일정: 10. 30.(금)~11. 13.(금) -대상: 관내 9~24세 청소년 70명 -내용: 청소년운영위원회 비대면 기획활동으로 DIY키트 제작활동	비대면 추가개발
방과후 긴급돌봄 영역	긴급돌봄 급·간식 지원	-일정: 3. 17.~10.14. (총 24회) -대상: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중학생 1~3학년) 총768명 -내용: 긴급돌봄 급·간식, 학습지원, 키트지원	대면 → 비대면 전환
	언택트 DIY 꿈의 집	-일정: 11. 14.(토) -대상: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중학생 1~3학년) 총32명 -내용: 미니어처하우스 만들기 키트 체험활동	비대면 추가개발
	마크라메 크리스마스트리	-일정: 12. 5.(토) -대상: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중학생 1~3학년) 총32명 -내용: 마크라메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비대면 추가개발

3. 미추홀구청청소년수련관 온라인활동 활동평가 (대면 → 비대면 및 온라인 프로젝트 운영)

가. 유형별 활동평가

유형	활동명	활동평가	비고
가족 활동	미추와 콩나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활동을 기획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확대함 2. 청소년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내 여가활동 만족도를 증진함 3. 온라인 프로그램의 첫 사업으로 콩나물을 매개로 가족소통과 가족요리 시간으로 참가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유형	활동명	활동평가	비고
	호국보훈의 달 기념 '애국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줌 2. 실내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 제공하며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하여 청소년들은 가정 안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함 3. 완성된 태극기 깃발을 수련관 앞마당에 전시함으로써 비대면 활동의 결과물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음 	
	가족 DIY 목공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프로그램을 온라인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강의 및 비대면 활동으로 진행 2. 지역사회와 연계한 목공예 재료 제작으로 각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만들 수 있는 목공프로그램제공 3.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집에서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장점이 있었음 4. 반면, 각 가정의 영상장비 상황에 따라 실시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음 	
	방구석 가족 사진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들이 주말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문화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방구석 가족 사진관 진행 2. 각 가정에서 세가지 주제와 미션에 맞는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가족사진 전시회를 진행하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경험 기회를 제공함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 가족씩 전시회 관람을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설명과 전시회 안내 등 가족 맞춤형 진행과 설명을 통해 전시회 관람과 포토존 촬영이 순조로워 프로그램 만족도 높았음 	
청소년 참여 및 활동 영역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욕구 조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운영위원들의 주도적 프로젝트로 코로나로 인한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조사 및 희망프로그램 등 욕구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2. 수련관을 이용했던 관내 19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추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다양한 대화활동 및 공예체험활동이 우선순위로 집계 되었음 3. 결과를 바탕으로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온라인 대회 활동을 기획 및 운영 할 예정 	
	2020 풋살대회 스테이 앳 홈 챌린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대면 활동분야를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청소년 모험신체 활동 프로그램인 온라인 스테이 앳 홈 챌린지 진행 2. 각 가정 또는 야외에서 1인 영상으로 참여,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의 욕구 해소 기회를 제공함 3. 기존에 청소년 풋살 대회와는 달리 온라인을 이용한 개인 신체활동으로 변경되어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음 	

유형	활동명	활동평가	비고
청소년 참여 및 활동 영역	온라인 댄스 대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 활동분야를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문화예술의 끼를 발산 할 수 있는 온라인 댄스대회 진행 각 가정 또는 야외에서 1인 영상으로 참여 진행하였으며, 동아리 및 그룹 활동에 익숙하던 지역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여가문화 거리를 제공함 대부분 청소년들이 영상촬영(장비 등) 및 편집이 익숙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음 	
	줄넘기 활동 '점핑'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 활동분야에서 가족이 다 함께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신체활동을 통해 지역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여가문화 거리를 제공함 결과 업로드, SMS발송 등 빠른 온라인업로드 및 문자전송을 통하여 참가가족이 확인 할 수 있게 진행 함 	
	나의 인생 응원액자 만들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주최로 인천 내 청소년 기관들이 함께 진행하는 온라인 미션한마당 프로그램 진행 청소년들이 활동 키트를 받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활동하였으며, 캘리그래피로 자신을 응원하는 문구를 작성하여 액자를 만들어서, 코로나블루로 지친 청소년들을 응원함 프로그램 활동 인증 응답률이 너무 낮아서, 청소년들의 활동 진행과 결과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4차산업 활동 생활과학 놀이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적성 역량강화를 위한 4차산업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체험활동으로 진행 관련 재료를 사전 우편발송으로 각 가정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면활동을 최소화함 온라인 플랫폼(ZOOM)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 송출함으로써 지도자와 소통하는 활동진행 	
	집콕취미 생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집에서 간편하고 흥미로운 체험활동을 통한 성취감 및 만족도 향상 청소년들이 직접 비대면 활동을 기획하면서 기획력 향상 및 소속감을 높일 수 있었음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활동을 통해 수련관 및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홍보할 수 있었음 	

유형	활동명	활동평가	비고
방과후 긴급 돌봄 영역	긴급돌봄 급·간식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선 지도관리를 통해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및 학습 지도 등 필요사항을 확인함 2. 급·간식지원을 통해 참가청소년이 식사를 거르지 않고, 신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줌 3. 급·간식 메뉴 선정함에 있어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유제품과 과일 등 균형잡힌 식단 지원함 4. 학습지원을 통해 참가청소년에게 생활 자기점검표를 제공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에 도움을 줌 	 <p>미주동구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지원사업사업자 지원 긴급돌봄 급·간식 지원</p> <p>10월 3주차</p>
	언택트 DIY 꿈의 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 주말체험활동 수요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일 수 있었음 2. 만들기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활동욕구가 많이 해소되었으나 만들기 키트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어 참가 청소년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있음 3. 개인 환경상 만들기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대면활동을 진행함 4. 우수청소년 시상상을 통해 동기부여 및 프로그램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음 	 <p>11월 비대면 주말체험활동 언택트DIY 꿈의 집 안내</p> <p>활동일: 2020년 11월 14일(토) 09:00~13:30</p>
	마크라메 크리스마스 트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말체험활동 수요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일 수 있었음 2. 만들기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활동욕구가 많이 해소되었으며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좀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됨 3. 키트지원을 통해 창의력 개발 및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의 여가생활의 욕구 해소에 도움을 줌 	 <p>미주동구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지원사업사업자 지원 비대면 주말체험활동</p> <p>12월 주말체험활동 마크라메크리스마스 DIY</p>

4. COVID-19 이후 변화와 청소년 활동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청소년활동은 교과활동으로 성취하기 힘든 부분을 보완해 주고,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여가문화 활성화 및 정서 증진 등에 필요한 다양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지 않으며, 교육업체 및 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활동 속 연대의 고민,

COVID-19 이후 갑작스러운 시대적 변화에 따른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 인프라의 부족함과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현장에서의 보완해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7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에서 제시한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 및 재구조화 필요성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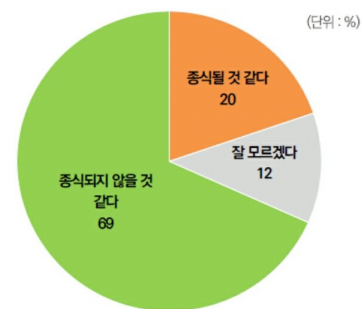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 속의 여론’ 결과

지난 10월 전국 약 19,000가구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0년 이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69%, ‘종식될 것 같다’ 20%, ‘잘 모르겠다’ 12%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식변화는 대면활동 모집과 참여 등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판단되며, 다양한 비대면 및 온라인 활동을 만드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 참고 자료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 속의 여론’

- 표본추출 방식 : 비례할당 추출
- 조사 방법 : 웹조사
- 조사 시기 : 2020. 10. 16.~ 10. 19.
- 표본 크기 : 전국 약 19,000가구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코로나19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 69%, “종식될 것 같다” 20%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18차 조사결과>

2) 미추홀구청청소년운영위원회 비대면활동에 대한 청소년 욕구조사

❖ 비대면 활동에 대한 청소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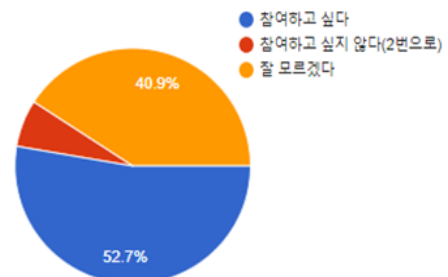
<운영개요>

- 프로그램 : 청소년운영위원회 流's
청소년 욕구조사
- 사업기간 : 2020. 7. 1.(수) ~ 7. 31.(금)
- 활동내용 : 지역 청소년 온라인 욕구조사

- 참고 자료 : 미추홀구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욕구조사’
- 조사 방법 : 웹조사
- 표본 크기 : 수련관 이용 경험이 있는
9~24세 청소년 198명

1. 비대면(온라인)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답 9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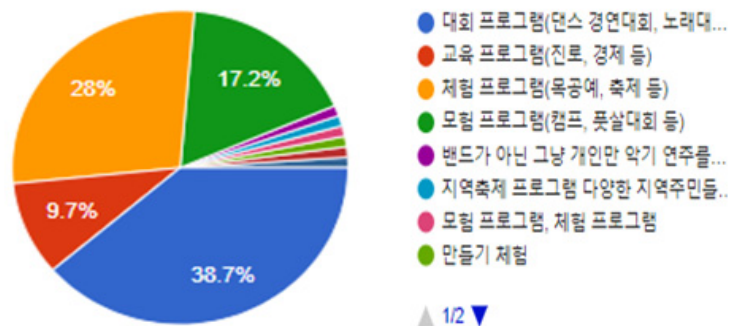
위 표에서 보여주듯이 청소년수련관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참여하고 싶다’ 비율이 52.76%(104명)인 반면, 응답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 비율이 40.9%(82명), ‘참여하고 싶지 않다’ 비율이 6.4%(12명)로 나타났으며,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비대면 활동이 활동보다 실감나지 않고, 실제로 만나는 체험이 좋다는 답변들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이 영역에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참여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청소년이 희망하는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

아래 표에서 보여주듯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38.7%(77명)가 대회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28%(55명)가 체험프로그램(공예, 축제 등)을 희망하였으며 이는 기관 이용청소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재미를 느낀 체험들이 긍정적으로 답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선 통계자료와 함께 살펴보면 앞으로 지속 될 수 있는 비대면청소년 활동에 흥미나 성취감이 낮아질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을 때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상이 고민이 필요하다.



5. 현장의 변화 및 개선사항

앞에서 보듯이 온라인활동 진행후의 활동평가를 종합해보면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청소년들의 활동 진행결과 확인하는 데에도 온라인이라는 환경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현실이라 각각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또한 각 참여 가정의 영상장비 상황의 다양성으로 소통의 어려움과, 영상촬영 장비 및 편집 기술등의 미숙함으로 프로그램 진행, 기획자로의 고충과 참가하는 청소년 및 참가 가족들의 불편한 사항 등이 발생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에서의 환경변화에 따른 몇가지 개선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비대면 및 온라인 활동으로의 혁신 필요

- 거리두기 문화 확산으로 비대면을 강조하면서 일상생활 전반이 강제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비대면, 언택트가 일상 생활화 되면서 사람들은 디지털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는 현실임
- 생소하게 느껴지던 비대면 활동과 온라인 활동이 주요 진행사업으로 운영 될 수 있는 환경적 대응 변화가 필요함
- 참여자들에게 최우선으로 꼽는 흥미성을 담을 수 있는 요소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경험 또는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 기술이 갖춰져야 함

2)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적 보완 필요

- 대부분의 청소년시설은 영상 및 편집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비대면 및 온라인 활동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청소년시설 마다 상이한 영상 및 편집장비 보유 현실에 대한 보완과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권고 필요함 (자산취득의 어려움, 지자체의 예산확보 어려움, 담당공무원 및 의회에서 인식변화 필요)
- 지역자원과 연계한 영상 및 편집장비의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족한 영상장비 충원 및 지원 필요
- 비대면 청소년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콘텐츠의 생산자, 전달자, 소비자 역할을 하는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모두 만족하는 플랫폼 완성을 위해 정책적인 구조가 필요한 시기이다

3) 청소년지도사의 비대면 및 온라인 활동 인프라 구축 및 전문역량강화 필요

- 영상 플랫폼(유튜브, 줌 등)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시스템 및 영상활동에 대한 전문교육이 부족한 실정
- 이러한 부족함 속에 청소년들이 비대면 및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배워가고, 성장해 가는 완성도 높은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현장의 혼란스러움과 어려움
- 영상전문가 파견을 통한 전문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의 실질적 지원과 비대면과 온라인 활동의 인프라 구축 및 매뉴얼이 필요함

4) 청소년지도 활동의 대내외적 인식 개선 필요

- 청소년시설의 지속적인 휴관으로 인해 다양한 활동이 연기되고 충분한 준비 없이 비대면활동을 진행함에 따른 대면활동에 비해 가시적 결과 및 성과를 보여주기가 어려워짐
- 연간 계획서를 온라인활동에 맞게 수정 보완 또는 신규사업 등으로 변환하여 진행하는 담당자들의 노고에 비해 활동을 저평가하는 일부 지역적 분위기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나아가 청소년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됨
- 온라인이라는 비대면활동에 대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서로의 기대 및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6. 제언

1) 청소년활동의 패러다임 전환

우리는 현재까지 시설(공간)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청소년활동을 진행하고 실적 위주의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많은 지도자들과 현장에서의 한결 같은 목소리로 청소년들의 주체적 활동을 말하고 미래의 주인공은 청소년이라고 말하지만 코로나19를 통해 다시 한번 시설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온라인 활동속의 자기주도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참여 강화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비대면활동은 청소년이 스스로 활동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결과물을 공유하거나 제공하였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활용을 기반으로 쌍방향 소통과 상호적 활동을 통해 콘텐츠 중심의 대면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발판이 될 수 있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청소년들은 지역의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중심인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과 청소년활동을 모색하여 청소년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만나고 함께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청소년 자신이 살아가야 할 ‘공동체’와 ‘삶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역량 발전과 시민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램을 개발한다면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청소년시설 및 지도자 간 연대활동

급격하게 변하는 청소년 현장의 대응을 위해 청소년시설과 지도자 간의 연대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 경제,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연대를 위해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결하여 확장하고 있지만 청소년 현장은 매우 미흡한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네트워크를 권고히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청소년 유관시설들과 청소년 지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청소년 현장이 급격히 변하는데 온라인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실제 대안이나 활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내용을 공유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이 절실하다. 기관에서는 자구책으로 아이디어 회의 및 현황 분석과 온라인 개관을 통한 비대면활동 전환 등 비대면사업으로 지속적인 운영체계 전환 및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운영자의 역량 및 기자재의 턱 없는 역부족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 및 등교를 하면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함에 저소득층 가정 등 기기가 없는 청소년들이 수업을 받기 어려운 위기에 놓이면서 교육청에서는 발 빠르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온라인 수업에 청소년들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 제공을 위해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여 원활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시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특화 시설이 아닌 이상 영상제작 및 온라인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을 위한 영상기자재 및 편집 장비 등 기자재가 전무한 곳이 많았으며 또 위탁으로 운영 되는 대부분의 청소년시설은 목적사업비 외 자산취득이 어려운 상태로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의 신속한 예산확보 및 기자재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 빨리 해소되길 희망해본다.

5) 온라인 활동으로 인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다양한 대비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온라인 활동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청소년지도는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로 인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제한적인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경험학습, 인성, 관계형성, 문제해결 등등 환경이 너무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형태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청소년활동이 주는 전인적 성장의 효과 또는 청소년활동의 고유목적 등이 온라인 활동만으로는 무척 한계적이기 때문이다.

2021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역할 즉, 청소년기관 및 청소년지도자의 역할 등은 어떻게 재정립해 갈 것인가, 그리고 온라인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활동에서의 만들어진 새로운 영역에 대한 준비, 활동 등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또한 정책적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2020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론' 제 18차 (한국리서치)
-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보건복지부)
-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제 156호<2020 가족DIY목공예 연간운영계획(안)>
-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제 463호 <자치활동단 온라인댄스경연대회 결과보고>
-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제 493호<대학생서포터즈 기획활동 미추와콩나물 실행결과보고>
-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제 651호 <2020 청소년운영위원회 流's 7월 운영결과보고>
-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제 652호<가족소통프로그램 애국가 실행결과보고>
-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제 663호 <2020 4차산업혁명미디어문화놀이터 '생활과학놀이터' 실행결과보고>
-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제 699호 <2020 온라인 스테이 앳 홈 챌린지 운영 결과보고>
-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제 761호 <대학생서포터즈 코로나19 극복! 응원해요 청소년실행계획>
-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제 796호 <지역사회 참여활동 '미션한마당' 실행계획 >
-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제 898호 <청소년 문화탐험대 방구석 가족 사진관 운영 결과보고>
-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제 959호 <2020 가족캠핑 '생방송 톡! 톡! 홈캠핑' 연간운영계획(안)>
-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제 988호 <2020 청소년운영위원회 流's 10월 운영결과보고>
-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300-55호(2020.9.28.)
<코로나19 관련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 적극 지원 요청>
-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330-20호(2020.11.20.)
<2020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1월 주말체험활동 「언택트 DIY 꿈의 집 결과보고」>
- 2020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장 네트워크(청소년기관실태)
- 고양시청소년재단 2020년 하반기 운영방향 및 전략

- 2020 KISA REPORT VOL.7 ISSUE:코로나19가 촉진한 원격교육의 현재와 미래
원격교육 콘텐츠와 플랫폼,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EBS 연구위원 최홍규
- 청소년활동론 (지역사회 청소년운동 관점) 정건희 (<http://blog.daum.net/babogh/13747465>)
- 교육부 블로그 (<https://m.blog.naver.com/moeblog/221882723324>)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보도자료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활동 운영사례 공유페이지 개설 (25020.10.22.)

청소년정책의 변화 방향 고찰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들어가며

권일남 교수님은 이번 기조강연에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활동 현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많은 부분에 공감하며 이 토론문에서는 청소년정책 측면에서 변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기조강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청소년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인구, 가족,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청소년활동에 위기요인이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듯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 변화는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는 급격한 청소년인구 감소로 정책 대상자의 축소로 이어져 청소년활동을 위축시키지만 동시에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지는 시대로 이어져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족구조와 관련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20대 단독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낳지만 이것은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저성장 기조를 보여주었고 향후에도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려워 청년 취업 문제가 지속되고 세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늘리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부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 불평등 역시 2019년까지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다가 코로나19 이후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지만 청소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있어서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위험요인을 기회요인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정책적 상황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만이 아니라 정책적 상황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정책이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19세에서 24세는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연령과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이 중복되는 상황입니다. 청년정책은 이미 지자체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본격화되었고 정책추진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으나 30개의 중앙부처가 22조원의 예산을 쓰면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관계부처 합동a, 2020).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20년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단일 사업예산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전체예산(2019년 기준 5,447억 원)보다 2배 이상 큰 상황입니다(여성가족부, 2019). 청소년활동 영역은 초기 청소년단체 등이 주도하던 시기에 청년들과 함께 이루어져 왔으며 유스 워크(youth work)를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국가들은 10대와 20대를 나누지 않고 같은 정책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연계가 청소년 참여와 활동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교육정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교육과정 개정과 맞물려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가 강화되었고 이제는 교육정책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고졸자들의 일자리 연계와 관련하여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관계부처 합동a, 2019; 관계부처 합동b, 2019, 관계부처 합동b, 2020)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취업지원센터에 이어 중앙취업지원센터가 최근 설립되었습니다.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교육정책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위기나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에서 보편적인 이행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활동 정책 역시 이러한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보호영역과의 협력과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칸막이의 해체는 부처 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정책이나 주거정책은 성인정책으로 일괄 처리되던 것이 이행기를 지원하는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로 청년 주거정책은 2017년 기준으로 4개 사업 2조 6,000억 원 수준에서 2020년 13개 사업 12조 8,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관계부처 합동, 2020a). 20대를 포괄하는 청소년정책에서 취업이나 주거 마련 등은 핵심적인 정책 영역이며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비형식 학습과 더불어 원활한 이행기 지원을 정책 추진의 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 영역을 다룰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별도의 주관부처가 있는 상황에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으나 노동과 주거, 금융, 부채 등과 같은 삶의 영역에 대한 역량을 증진시키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나아가며

국제연합이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정책 비전을 발표(Youth 2030: the UN Youth Strategy)하면서 이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기후변화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아가는 사회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UN, 2018). 유럽연합(Youth Strategy 2019-2027)도 청소년의 참여와 주도성을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EU, 2018).

우리나라 역시 사회정책으로서의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청소년 활동정책이 재도약을 준비하듯이 다양한 사회 환경과 사회정책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활동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19a).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안). 세종: 교육부.

관계부처 합동(2019b).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안). 세종: 교육부.

관계부처 합동(2020a). 청년의 삶 개선방안. 세종: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관계부처 합동(2020b).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세종: 교육부.

여성가족부(2019).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European Union(2018). *Youth Strategy 2019-2027*.

United Nations(2018). *Youth2030: The United Nations Youth Strategy*.

코로나 이후 공교육의 변화 예측과 대비

김정율 (강서청소년회관 관장)

목 차

1. 들어가며
2. 공교육의 의미와 학교교육의 맹점
3. 미래교육을 위한 화두
4. 예측되는 미래교육의 방향
5. 코로나19 이후의 우리교육의 변화
6. 마치며

1. 들어가며

우리는 청소년들의 성장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의 영역과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부정 할 수는 없으며 부정하는 의견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청소년지도 현장과 청소년정책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후순위에 놓여 있는지를 절감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부터이다. 결국 코로나 상황은 종식될 것이고 이후 사회, 문화적으로 청소년의 성장환경은 크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중에도 미래 교육과 학교의 변화는 청소년지도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대처방식에 따라서는 기회도 되며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본 토론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미 예측되고, 논의되고 있던 미래교육의 변화방향과 현재 교육부가 정책과제로 제시하는 코로나 이후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방향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지도 현장과 청소년활동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2. 공교육의 의미와 학교교육의 맹점

미래교육의 방향과 형식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대교육 공교육이 가지는 맹점¹⁾들을 살

1) '맹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현대교육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이 '문제점' 또는 '문제'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해

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국가에 의한 공교육(의무교육으로서 공교육)은 당연한 것이며 학교제도 또한 모든 청소년이 거쳐야만 하는 핵심적 성장환경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인류 역사 전체로 볼 때 아동과 청소년 즉 자녀를 성인사회로 진출하여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역할이 부모로부터 국가의 의무로 이전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일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국가주도의 공교육체계는 교육을 통한 국민양성의 제도적 장치로 발전하고 ‘대량 교육’과 ‘사회적 통제’를 기본 특질로 하였다. 특히 19세기 학교교육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양육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교수기능 그리고 국가주의적 통제에 따르는 훈육기능을 갖고 있었다. 현대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공교육의 틀은 청소년기를 지나는 모든 자연인에 대하여 일정한 생활시간, 일정한 삶의 기간을 ‘교육제도’ 구체적으로는 ‘학교’라는 틀 안에서 가두고 있다.

이미 1971년 일리히(Ivan Illich; 1926 - 2002)는 그의 저서 ‘학교 없는 사회(Deschooling society)’를 통하여 학교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맹목적인 학교에 대한 우리사회의 믿음을 통렬히 비난하며 학교의 인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을 역설하였다. 그에 따르면 ‘교육’은 사회생활에서의 기본적인 ‘필요’로 나타나고, 이를 제도화 하는 학교사회는 ‘배운다’고 하는 인간의 자율적 양식을 교육의 ‘필요’로 바꿔놓음으로써, 서비스 제도로서의 ‘가르치는’ 행위 즉 교육은 상품이라는 등식을 제도적으로 산출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학교는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독점하고 학교 이외의 다른 사회제도에 대해서는 교육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속의 다양한 활동들 즉 노동, 여가활동, 정치활동, 도시생활, 가정생활들이 교육의 방법이며 영역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에 필요한 습관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것까지 학교에 맡겨버리는 ‘신화’²⁾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리히의 ‘학교교육병폐론’의 관점은 라이머(E. Reimmer)³⁾에 의해 ‘학교교육사망론’으로 이어져 전개된다. 또한 이른바 ‘학교교육무용론(無用論)’ 혹은 ‘학교사망론’으로도 불리는 이들의 입장과 견해는 후에 보울즈(S. Bowles), 긴티스(H. Gintis), 로젠바움(J. E. Rosenbaum),

결’이라는 용어에 대척점으로 단순화해서 논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논의되는 필자의 교육에 관련한 비판과 해결을 위한 미래교육의 방향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학자들에 관점에 따라 논쟁적임을 필자도 잘 알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2) 일리히는 학교에 대한 근거 없는 네 가지 믿음을 ‘신화’로 표현하고 이를 학교가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 즉 학교에서의 수업을 통해서만 공부 가능하다는 믿음을 ‘제도화된 가치의 신화(The Myth of Institutionalized Values)’,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성장을 ‘교과과제’로 세분화해 강요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 ‘가치측정이라는 신화(The Myth of Measurement of Values)’, 기대하도록 강요된 직업범주에 들기 위해 학년과 졸업장을 갖기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하게 묶어 파는 상품과 같이 만드는 ‘가치묶음이라는 신화(The Myth of Packaging Values)’, 무한한 교육의 양적증대에 몰입하게 만드는 ‘무한히 진보한다는 신화(The Myth of Self-Perpetuating Progress)’

3) E. 라이머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미국의 교육학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공무원생활을 했고 그 후에는 원자력에너지위원회, 미시간 대학, 시라큐스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 활약했다. 그 후 푸에르토리코 인력자원위원회의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진보를 위한 동맹’에서 활약한 다음 국제문화자료센터로 자리를 옮겨 교육문제를 연구했다. 이반 일리히와 함께 일하면서 15년이라는 장구한 기간에 걸친 토론과 대화의 끝에 『School Is Dead』라는 저서를 남겼다. 마치 중세의 국교와도 같은 존재가 된 학교는 모든 가치와 규범을 규정하는 사회의 재판소가 되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학교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말을 잘 듣고 잘 보인자에게는 좋은 선물, 즉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나쁜 선물, 즉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는 교회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해주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키워준다는 본래의 사명을 상실한 학교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고 있다(김석원 옮김, 1982).

카노이(M. Carnoy), 스프링(J. H. Spring) 등의 갈등론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쳐 교육이 오히려 비인격적 교육결과를 산출하는 구조로 이해되었다(맹영임 외, 2008).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제도를 운영하는 교육당국의 조치들은 이와 같은 교육 갈등론자들의 비판적 지적의 지점들을 여실히 드러낸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학생들의 ‘배움’의 양과 질 보다는 학교제도 속에서 어떻게 ‘수업일 수’를 채울 것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언컨택트 온라인 교육이 구조적으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발달 하지 않은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에 ‘배움’을 늘리기에 충분치 않음은 자명 하다. 그럼에도 1년간 우리 교육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저 기존에 제도화 된 틀 내에 학업 시수를 공급하는 방법론을 고민 하고 국민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지”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이 말은 ‘고등학교 교육수준 정도의 배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인가 단순히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의미 일까. 우리 대부분은 후자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배움보다는 교육제도가 가지는 현대사회의 계급적, 귀속적 속성에 매어있는 것이다. 즉 어떠한 사람의 실질적 능력보다는 최종 교급의 정도이나 어느 학교동문으로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학벌에 더욱 연연하게 된 사회적 환경에 순응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또한 우리가 받아온 교육의 효과이며 국가의 공교육은 결국 우리를 이러한 순응적인 사회인으로 배출한 것이다.

3. 미래교육을 위한 화두

위에 언급한 공교육에 대한 갈등적이며 냉소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한 토론자의 이러한 단정적 결론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영역의 학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화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화두와 연결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대응모습은 미래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 지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가. 미래사회에도 국가주의 공교육이 필요한가.

우리나라 의무교육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민의 교육권보장과 국가의 공교육제도 유지를 위한 국가의 권한에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들의 자녀교육이라는 자연스러운 인간행위의 보장으로서 자연권 즉 헌법 10조의 자유권 제36조에 자녀양육과 관련한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장과 같은 내용과 비추어 충돌될 수 있음이 조망되고 있다. 이는 특히 현대교육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업체들의

호황과 당위성, 대안교육의 필요 논리, 홈스쿨링에 대한 부모의 취학의무 면제요구 등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드러나고 있다.

홈스쿨링을 소재로 헌법상의 교육 개념과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수행된 헌법재판소(2018)의 연구는 “의무교육 이행의 본질은 아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있을 뿐, 그 교육의 방법과 장소가 반드시 ‘학교’여야 할 헌법적 당위는 없다. 오히려 의무교육의 이행형태와 방식을 강제적인 취학의무에 국한시킴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교육방법과 교육시설 및 체계를 이용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아동교육의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지를 배제하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학교교육의 실패로 아동이 자신이 가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것이 바로 헌법 제31조 제2항의 교육의무 불이행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맺고 있다. 교육이 국가독점의 권리로 이해되었던 공교육체제 및 국민 교육권에 대한 당위적 인식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 실시와 학습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교육의 전면에 나서는 자기주도형 학습이 고도화 되는 현실은 국가 주도의 교육제도와 커리큘럼의 획일성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근대화 사회가 가지고 있던 계급과 소득불평 등으로 인한 지배층의 지식 독점문제의 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교육에 대한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지지된 공교육시스템의 강화는 더 이상 그 명분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나. 미래에도 학교중심의 집단교육 방법론이 유효한가.

근대화 과정에서 선택한 ‘학교’라는 교수-학습의 제도적 구조는 소수의 교수자 집단과 다수의 학습자 집단을 그 구성원으로 하며 내부적 위계를 만드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교육의 수준은 평균적이며 획일적인 방법으로 유도되어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밀려드는 교육 수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론이 당시로서는 집단지도의 방법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학교라는 집단적 교육방식은 애국심 넘치는 근대 산업인력으로 적당히 계몽된 국민의 양성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선택되어진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산업혁명의 열매로 풍요롭고 다양한 욕구를 표출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에 서고자하는 통치자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교육제도로써 학교제도는 도입이후 150여 년 간 인류의 교육실험으로서 무수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매우 견고한 입지를 유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이 학군과 학교 밀집에 따라 등락하는 현상만으로도 그 위상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미래사회에도 학교를 통한 집단적 교육이 여전히 이러한 위세를 가지게 될까. 그렇

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은 교육제도 개혁의 목소리와 방향들이 학생 개인에 특성에 따른 맞춤형교육의 필요를 주장한다. 또한 점점 사회 속에 개인의 인식수준, 경제적 교육의 감당수준이 높아지고 4차산업으로 일컫는 다양한 기술적 발달이 개인의 실질적 교육의 효과는 높이고 비용수준은 낮추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집단적, 획일적, 평균적 교육의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다. 효율적 학습을 위한 테크놀로지는 충분한가.

교육을 근대사회가 산출한 지식전달서비스 상품이라고 할 때 이를 국가가 독점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공교육제도이다. 또한 그 서비스의 공식적 명칭이 학교제도와 교육과정이라는 체계적 서비스 방침 일 것이다. 이러한 지식전달서비스는 개인이 거쳐 온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서 즉 졸업장을 통하여 해당 개인의 지식인으로서 등급을 보증한다. 이러한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짜여진 각본(교육과정)대로 일정기간 동안(수업일수) 일정한 과목과 교실의 지배자(교사)를 따르게 된다. 또한 향후로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지도 모를 파편화된 원고(교과목)를 누가 더 빨리 외우는지 경쟁하여 매겨진 등급과 함께 평가된다. 이렇게 매겨진 개인의 등급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사회 속에 새로운 계급과 학벌 공동체에 편입되는 도구로 사용된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수요자인 학습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제도와 시민사회의 이런 작동구조는 너무나 강력한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 결국 이미 도래한 수많은 효과적인 학습의 도구들이 있음에도 지식인이 된다는 명분으로 학교에 가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19 상황은 사회적 당위성 속에 몸을 감추었던 근대적 산출물로서의 학교라는 독점적 상품의 허구성을 드러내 보였다. 이는 사회적 인식의 고리 한쪽 축에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전 세계 공교육 당국은 나름대로 에듀테크로 불리는 교육 플랫폼을 가동하였다. 우리 교육부 역시 2개의 공공 원격수업 플랫폼(e학습터, 온라인 클래스)에 인프라를 증설하고 빠르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EBS의 기존 7개의 채널을 12개까지 확대하여 대응 하였다. 한편 고등교육(대학)영역에서는 기존 에듀테크의 대명사인 무크(MOOC : 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은 이미 곳곳에 자리 잡고 너무도 쉽고 빠르게 수업일 수를 채워주었다. 이미 2012년에 설립된 해외 무크의 하나인 코세라(Coursera)는 학사진행의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대학에 자신의 플랫폼을 한시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가하면, ZOOM과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도 전 세계 교육자들에게 한시적인 무료계정을 열어줌으로써 교육을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서 학교의 의미를 바꾸어 버렸다. 이는 일부 저개발 국가를 제외 하고 교육의 공급시스템으로서 테크놀로지 환경은 이미 충분하였음을 강제로 보여준 사례이다.

특히 MOOC의 경우 물리적 제약인 학교라는 공간과 규정된 시간이 아닌 학습자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사회가 요구 하는 지식인이라는 자격증으로서 세계 우수 대학의 고등교육 졸업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교육제도와 사회적 환경의 통속적 연결 구조를 끊어낼 실마리를 제공 하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코로나 19 상황 아래서 공교육인 초·중등 의무교육도 같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즉 지난 1년간의 온라인 학습 상황은 학습자가 자격에 걸 맞는 ‘배움’을 이루었느냐가 아닌 수업일 수를 채우도록 하는 교육서비스를 공급 받았다는 것만으로 상급 학년, 학교로 진급하게 하였다. 사회가 요구하는 졸업장을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 꼴이 되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인정이라는 것이 온라인학교라는 제도, 홈스쿨링을 인정하는 제도 등 제도적 절차만 바꾸면 되는 일이었음을 교육당국이 보여준 꼴이 된 것이다.

결국 향후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학교와 이를 수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활동해온 교육지배자(교사 등 관계자)의 수를 대폭 축소하여도 사회가 요구하는 졸업장을 기술과 제도를 결합하여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라. 학교의 사회적 역할이 돌봄이어야 하는가.

코로나 19 환경에서 학생들은 어차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거라면 언제나 반쯤 감긴 눈으로 낮낮이 없는 톤으로 되뇌는 졸립기 짝이 없는 우리 선생님의 강의보다는 사교육 학원 일타강사의 강의를 훨씬 도움이 됨을 알았다. 어차피 집에서 수업을 들으며 친구도 못 만날 바에는 수업은 컴퓨터 혼자 돌아가게 하고 그 시간에 스마트폰 게임을 통하여 친구와 게임을 하며 즐기는 요령도 배웠다. 더하여 부모(맞벌이로 출근한 부모) 없이 홀로 있는 시간에 자유로움과 그걸 걱정하여 자주 전화로 확인하며 나에게 관심을 써주고 일찍 퇴근하여 나에게 하루 일과를 묻는 부모도 새로이(?) 만났다.

결국 학생들은 현대사회의 학교가 배움과 가르침의 영역보다는 돌봄의 영역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공간에 가두고, 학교보안관이 지켜주며, 밥까지 먹여주는 보육소이었음을 눈치 챌 것이다.

학교는 특성상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일정한 돌봄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것이 학교에 본래적 목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학교의 돌봄 기능이 사회전면에 등장한 것은 학교급식의 실시로부터라 할 수 있다. 학교급식은 이미 1981년 1월 ‘학교급식법(법률 3,356호)’의 공포·시행으로 제도화되었으나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3년을 초·중·고 모든 학교로 확대되면서 부터이다. 또한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교육복지정책]이라는 용어가 학교사회에 전면적으로 들어서기 시작 하였다. 당시 교육복지 해당학교의 단위사업으로 실시된 [방과후돌봄교실]은 이후 ‘학교방과후교실’, ‘초등 돌봄교실설치

및 돌봄교사 배치'등으로 학교정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심지어 2010년부터 불어온 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논란을 통하여 국민들이 이해하는 학교는 단지 배움의 터가 아닌 돌봄의 터가 되었다.

이리하여 전국의 모든 성장기 아이들은 일정한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조리된, 똑같은 밥과 반찬을, 내 것이라고 배분된 만큼만 사각 식판위에 담아 먹는 행위를 유치원을 포함하여 10여 년간 반복하며 획일적인 입맛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는 코로나 19 상황에 학교가 각 가정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옷을 수밖에 없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⁴⁾.

이렇게 학교가 돌봄 기능을 강화하게 된 것은 경제성장 중심 사회발전의 구조적 요구와 앞서 일리히를 통하여 설명한 우리사회가 가지는 학교에 대한 신화적 신뢰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나마 학교가 안전하며 자녀의 성장에 결정적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것이다. 교육적 작용이 부족한 돌봄 중심의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성부족, 학교부적응, 학습에 대한 조기포기를 종용하는 형식의 부작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는 다시 우리사회에 공고한 획일성과 연결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부작용을 눈치 채었다 하여도 돌봄 중심의 교육정책이 되돌아가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4. 예측되는 미래교육의 방향

이 같은 현대교육방법의 모순과 한계는 미래교육을 고민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여러 지적과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보기에는 너무도 끔찍할 만큼 원고가 길어지기에 다소 논리적 비약이 있을 지라도 토론자가 생각하는 방향을 단순히 나열해보고자 한다.

가. 책상 없는 학교, 교실 없는 학교, 교과서 없는 학교의 탄생

교육 강국으로 유명한 핀란드는 2016년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을 통하여 교과목간 융합을 바탕으로 하며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의 방안을 추구하는 문제중심학습(PBL), 현상기반학습 등을 전면적으로 등장케 하고 있다. 심지어 교과서도, 교실도, 개별적인 자기책상도 없는 학교를 추구하는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도입중이다(서울연구원, 2018). 또한 미국, 영국, 핀란드 같은 나라들에서는 홈스쿨링이 합법이며 이를 공교육제도에서 '홈스쿨링지원센터'와 같은 구조적 기구를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홈스쿨링을 위한 교사 파견 및 학력을 인증하여 상급 학교 및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졸업장을 통하여 인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하는

4) 교육부 보도자료(2020. 9.9) : 코로나 위기 극복, 학생가정에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나. 국가주도 교육과정의 파괴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일정한 교육의 목적에 맞추고, 교육 내용과 정해진 수업의 교육 및 학습을 종합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정의 되지만 일반적 의미에서의 쓰임새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된다. 하나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으로서 교급의 체계를 의미하며 또 다른 의미로는 각 교급 내에 교과들의 목록이나 교과별, 학년별 교수 내용의 체계로 이해된다. 첫 번째 교급의 체계는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로 구성된 학제로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6-9년 초·중등교육을 공교육과정으로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구성 또한 두 번째 의미의 교육과정을 국가주도로 설정하여 획일적인 교수-학습의 과정이 구성되어 온 것이 현재까지의 모습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내용은 근대사회의 산업구조와 연결된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까지 일컫는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이 더 이상 유효 하지 않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 교육과정 개정에 ‘창의성’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2015 교육과정을 통하여 미래사회 필요한 6대 핵심역량(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고 선언한다. 그럼에도 이는 선언적인 숙어에 불과 한 채 암기식 지식전달 중심의 교육 형태는 너무도 공고하게 자리 잡고 탈피하지 못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체육, 음악 등 교과목이라는 해당 교수인력으로 구성된 탄탄한 칸막이는 자신들의 직업 안정성이라는 이익에 따라 교육내용의 융합적 구성에 저항하며 서로 자신의 과목에 대한 필수시간을 늘리려 경쟁한다. 물론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습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충분한 명분도 구성해 내고 있다. 더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 구호 속에 헌법 31조의 공교육 규정을 살짝 포장)하여 학생들의 국가중심 공교육 기간을 늘리려 노력한다.

그러나 현상은 더 이상 오래가지는 못 할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 국가 중심의 국가주의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홈스쿨링과 같은 대안적 교육과정의 요구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교육제도의 획일성이 온라인을 통한 대안적 방법론이 대두되며 점점 명분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초등교육 까지만 공교육과정으로 강제하고 이후 중등교육 과정은 수요자의 선택과 공급자의 경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무상교육 여부는 교육의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

5)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무상교육 주장은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와 연결하여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교육과정으로 묶어내는 논리를 형성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많은 사립 고등학교 까지 공교육기관으로 포함시켜 교직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하는 신분보장을 이룰 수 있다.

인 것이다. 즉 국가의 무상교육 서비스로 모든 해당연령의 청소년에게 그가 어떠한 교육내용과 과정을 선택하였든 그 비용은 국가가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 할 수 있다. 현대국가는 그 정도의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수준이 된다.

한편 에듀테크 사회에서는 공교육과정의 편제기간을 줄이더라도 다양한 공사립 교육시스템을 인정함으로써 초세분화 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은 무한정 확장 할 수 있다. 사회와 학생이 희망하는 교육내용으로 교육과목이 확장되며 동시에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여 능동적인 교육참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 돌봄 기능 강화와 개인 맞춤형 학습공간으로서의 학교

코로나 19 상황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던 희망적인 학교의 모습은 국가교육과정에 의한 지식교육과목들을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상정해본 미래의 학교모습은 맞춤형 지도가 가능한 돌봄 공간이다. 이 경우 기존의 교과체제 교육과정에 대한 큰 변화 없이 또한 기존의 교사사회에 큰 저항 없이 학교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각 지식교과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교수능력이 뛰어난 몇 명의 선생님들에 의하여 온라인을 통한 전달식 통합교육을 하고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이를 수강케 한다. 즉 EBS 강의, 온라인 플랫폼 등 에듀테크를 통한 일률적인 지식전달교육의 진도는 교육당국이 직접 감당하여 제공한다. 대신 각급 학교에 해당과목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별로 개인지도 형식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즉 학생들은 집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교실 또는 공간 등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하며 충분치 못하거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을 해당학교 해당교과교사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의 수준별 맞춤 교육을 통하여 학습효율을 높이며 학습의 자율권과 주도적 학습능력에 상승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학교와 교사의 경우 학생들 각각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피며 교육에 임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학교로의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교육이 가능해지면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한층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생활지도와 정서적 멘토로서 교사의 교육여건도 깊이가 깊어질 수 있어 돌봄으로서의 학교 역할도 더욱 의미가 깊어질 것이다. 이는 학교 돌봄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한층 높아지는 문제에 긍정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줄어드는 학생 수 대비 교직원에 대한 수급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학교의 역할과 교과의 변화에 따라 과잉된 교사(과원교사)의 수를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신규 임용교원의 수를 급격히 줄일 필요가 없게 된다.

5. 코로나19 상황 이후의 우리교육의 변화

지금까지 토론자의 논의는 보다 먼 미래의 일로 당장 2-3년 내에 벌어질 현실적인 변화는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보다 현실적인 변화사항을 검토하고 청소년지도에 종사하는 청소년계의 대응방향을 고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0월 교육부는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한바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지만 그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첨부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기를 희망한다. 토론자가 앞서 기술한 방향과도 그 맥락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늘 그랬듯이 교육부 추진방향의 발표와 현실은 제법 괴리가 있어 이번에도 실질적 변화 보다는 또 다시 선언적 언명에서 그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 측면에서 우리가 당장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

<표 1>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분야	추진 목표	10대 정책과제(안)
유·초·중등교육	국가의 책무성, 현장의 자율성 강화	①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②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③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④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고등·평생교육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	⑤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⑥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⑦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⑧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기반 구축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⑨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⑩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이는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시행과 교원에 관해 미래형 교사로의 직무 변화를 추진하고 수급하고자하는 교원정책의 변화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소개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을 발표하고 2018년 54개교 2019년 48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2019년 선도학교 352개교를 추가로 지정하며 종합계획안을 준비하여 오고 있다. 2020년은 지역의 시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코로나 19상황으로 잠시 주춤한 상태로 보인다.

토론자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전면적인 시행은 청소년의 성장환경에 매우 큰 변

화를 만들 것이며 청소년계 역시 큰 기회 또는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주목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선택교과의 교육과정을 수요자의 욕구에 맞추어 다양화하기에는 지금 당장 학교가 가지고 있는 동원 가능한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점과 모든 요구에 대응하는 교과목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017년 발표된 교육부의 추진방향에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운영예시로 지역 교육기관 활용형이라는 분류항목이 등장한다.

〈 (참고 1) 교육과정 운영 유형 예시 〉

1. 단위학교 단독형

- ▶ 학교 교원, 외부 강사 및 학교 시설 등을 활용하여 단위학교 내에서 모든 선택 과목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모형

2. 타 학교 연계형 (인근 학교 간 협력을 통해 공동 과목 개설)

- ▶ (일반고 간 연계) 소인수심화과목 등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 (*연구학교-선도학교 간 연계 등은 사·도교육(지원)청이 지원)
- ▶ (일반고-특성화고 연계) 진로 변경 및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강 기회 제공

3. 지역 교육시설 활용형

- ▶ 교육청 혹은 지역 공공기관, 대학 등의 유휴 공간 내 수업 운영 및 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공동교육과정 운영 (*공간 확보, 학교 간 연계 등은 교육(지원)청이 지원)

4. 지역대학 협력형

- ▶ 심화 과목, 실습 등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 내에 고교생 대상 수업을 개설·운영하고, 계절수업 등을 활용해 정규 교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5. 온라인 강의 활용형

- ▶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운영

⇒ 예시를 참고하여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

지역교육시설 활용형 교과가 추진될 경우 교육청 단위로 희망 기관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심사하는 형태로 기존 교사연수기관 지정의 방식을 준용 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된다. 이때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시설들의 인프라와 산업구조에 따른 진로의 전문성을 가지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참여할 수 있다면 청소년계로서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반면 그동안 학교는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청소년계가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청소년활동으로서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선택과목이 코로나19로 활성화된 온라인 강의 활용형으로 활성화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교육부의 대책발표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미래형 직무교사⁶⁾가 확대된다면 청소년계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6) 교육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 (미래형 교사 직무분석) '지식전달자 → 학습촉진자 지원자' 역할 전환과 함께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활동을 반영한 교사의 직무를 재구조화하여 교원인사제도 및 수급정책에 반영

즉 학교 내 청소년 성장에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자체적인 교원인력이 배치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청소년활동 요구수요까지 학교가 수용하는 형태가 되면 지역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시설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

우리는 과거 [2009 교육과정 개정]시 도입된 ‘창의적체험활동’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교육당국의 선언적인 용어에 휘둘린 기억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년제, 진로집중학년제의 도입 역시 청소년계와 전면적인 협력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도 하다. 그럼에도 아주 무관하지 않으며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학교들과 어느 정도 교류가 확대되었음을 무시 할 수 없다. 앞으로 실시될 고교학점제 역시 교육당국은 청소년계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것이 청소년의 성장환경에 분명한 변화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6. 마치며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겠지만 토론자는 오랫동안 청소년지도 현장에 머물며 최근 코로나 19 상황만큼 청소년 현장에 대해 무력감과 위기의식을 가져보지 못했다. 무력감의 근원은 청소년지도와 청소년활동이 근본적으로 청소년과의 직접적 접촉과 소통을 근간으로 하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활동의 핵심이 체험활동을 통한 경험학습원리에 의존하여 왔기에 지금의 언컨택트(Uncontact) 환경에서 수행된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나 갑작스럽게 개발한 온라인 중심의 활동은 단순히 흉내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괴감을 지울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현장의 지도자들 중에는 이러한 시기를 단순히 지나가는 시기로 여기며 별다른 준비 없이 상황이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정책당국은 더욱 무능한 모습으로 현장에 대응만을 지켜보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코로나19는 분명 우리사회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사회 전반 모든 영역에서 비접촉 방식이 익숙해지고 있고 교육에서도 단순히 온라인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욕구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이 청소년의 성장환경과 생태환경을 변화 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대책과 준비를 하여야 한다.

부모들은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익숙하여 지고 있으며 심지어 비즈니스 환경조차 재택근무가 어색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청소년의 생태환경의 긍정적인 변화이다. 반면 아이들의 놀이공간은 점점 더 가상의 네트워크 공간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익숙한 온라인 교육 환경은 인터넷에 정보를 맹신하고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는 부작용의 우려도 증가시키고 있다. 전보다 더 SNS에 집착하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사생활의 경계도 모호해진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는 그래도 대응하기에 용이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

지 못하는 여러 변화도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도 살아보지 못한 환경이기에 어떻게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 할 것인가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토론자의 논제가 단순히 교육환경의 변화를 예측해본 것이 아닌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청소년의 성장환경에 대한 청소년지도자로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2020년도 청소년활동학회 추계학술세미나
“COVID-19이후 청소년활동 현장의 변화와 준비”

■ 발행일 : 2020년 12월 21일

■ 인쇄일 : 2020년 12월 22일

■ 발행처 : 한국청소년활동학회

■ 인쇄처 : 형우디앤피
(02)2263-3887

* 이 발표·토론집에 수록된 글을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